

예비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수진*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박

사과정

이상명**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국 문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중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계획된 행동모델의 변수들을 매개로 하여 미래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창업의도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많이 있었으나 주로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창업의도를 높이는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기업가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본질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연구에서는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것에 주목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PFAI(Performances Failure Appraisal Inventory) 척도를 사용, 예비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의도 등을 매개로 하여 실증하였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시키는 역할로써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각각 부(-)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창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셋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계획된 행동모델의 구성요소인 창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하여 각각 영향을 미쳤다. 넷째, 창업교육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조절하는지 분석한 결과 창업교육을 수강한 집단에게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핵심주제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PFAI, 계획된 행동 모델, 창업의도, 창업교육

1. 서론

사업이 성공했다는 것은 은퇴, 이임, 매각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확장만을 성공으로 인식하는 문화, 기업 실패를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들이 창업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키워왔다. 그러나 실패는 기업가정신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연구자는 기업의 성공 뿐 아니라 실패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연구들이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사실 실패는 성공에 있어 필수적인 속성으로 선구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Aldrich, 1999; Learned, 1999; Rita Gunther, 1999). 과거의 연구는 실패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어 진행되어왔다(Cacciotti et al., 2015). 기업가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사업들은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져 또 다른 사업에 도전하는 촉매제가 되기도 하는데(Flores-Romero, 2005), 이 때 기업가가 실패의 원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에 따라 과거의 경험이 실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학습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사업 실패에 대한 위험과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시도조차 꺼리는 형편이다.

Green Paper on Entrepreneurship in Euroup(2003)에 의하면, 유럽의 기업가들은 미국보다 실패의 사회적 낙인을 더 두려워한다고 한다. 법적, 재정적 실패의 공식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파산이나 기업가적 실패 외에, 비공식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 김수진,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박사과정, sheis-sj@hanmail.net

** 이상명,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sanglee@hanyang.ac.kr

때로는 기업가정신에 더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기업가의 심리적 장벽은 기업가적 활동에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Landier, 2004).

이에 본 논문에서는 실패에 대한 개인의 두려움이 기업가적 활동에 미치는 관계를 조망하기 위해 예비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계획된 행동모델의 변수를 매개로 하여 두려움과 행동, 그리고 의도와의 관계를 알아볼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정적 관계를 상쇄시킬 만한 요인으로 창업교육을 제시하여 교육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예비창업자가 인식하고 있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행동, 의도와의 관계와 창업교육의 효과성을 통해 향후 창업 활성화 방안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선행연구

1)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의도

최근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심리학, 정책학, 건축, 성인학습, 사회학, 기업가정신 등 여러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기업가적 행동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기업가로 하여금 위험을 극대화시키고 성공에 대한 가능성은 축소시키는 인지작용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창업의도, 유지의사를 비롯한 기업가적 활동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경영학 분야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주로 위험회피의 개념으로 인식하여 단일항목으로 측정하거나(Bosma & Schutjens, 2011; Hormiga & Bolivar-Cruz, 2012)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개념화시켜(Noguera, Alvarez & Urbano, 2013; Vaillant & Lafuente, 2007) 실패의 두려움에 대한 속성을 자세히 알기 어려웠다. 매년 발간되는 GEM 연구에서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의도에 관한 종단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이 창업하려는 의지를 저해합니까?’ 라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여 내용타당성의 한계점을 나타내었다(Olaisson et al., 2014).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개념적 속성을 다차원적으로 정의하고 더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Conroy(2001)는 Lazarus(1991)의 인지적-동기적-관계적 이론에 근거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다차원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평가하는 척도(Performances Failure Appraisal Inventory: PFAI)를 개발하였다. 기업가정신 분야 연구에서는 PFAI 지수를 활용하여 기업가의 기회인식, 성과, 기업가적 행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Wood, & Pearson, 2009; Mitchell, & Shepherd, 2010, 2011).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 기업가정신의 지속성, 기업 초기단계에서의 성공에 대한 기대를 저하시킴으로 창업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renius, Minniti 2005, Morales-Gualdron, Roig, 2005), Shinnar et al.(2012)는 중국, 미국, 벨기에 국가 간 비교연구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기업가가 되려는 의도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2) 계획된 행동모델과 창업의도

행동 의도를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인 Fishbein & Ajzen(1975)의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은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수행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Norman & Smith 1995). 행동은 계획된 행동이자 인지적 과정으로, 이 때의 의지는 계획된 행동의 실행 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변수라고 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의 행동의도는 어떤 행동에 대해 일관성 있게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으로 인식하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압력이라고 할 수 있는 주관적 규범, 개인의 주관적 평가인 인지된 행동 통제에 의해서 결정된다.

3) 창업교육과 창업의도와 의 관계

창업의도에 관해 Timmons(1994)는 창업을 위한 여러 역량들은 팀워크 등의 학습활동을 통해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창업교육을 통하여 창업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어 창업의지에 대한 창업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병주(1998)는 창업자는 창업교육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주장하고 창업 관련 지식과 기술, 즉 창업기술은 개인에게 창업을 하려는 동기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창업교육은 창업의도를 촉진시킨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의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창업기술을 배우으로써 창업의 성공가능성이 보다 촉진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예비창업자들에게 있어서 학창시절은 계획된 준비기간이어야 하므로 창업교육 및 현장과 연계된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배종태, 1998).

Kierulff는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불확실성을 지식으로 대체하는 교육을 통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교육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첫째,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이며 둘째, 지인에게 성공한 창업가와 같은 역할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창업교육은 창업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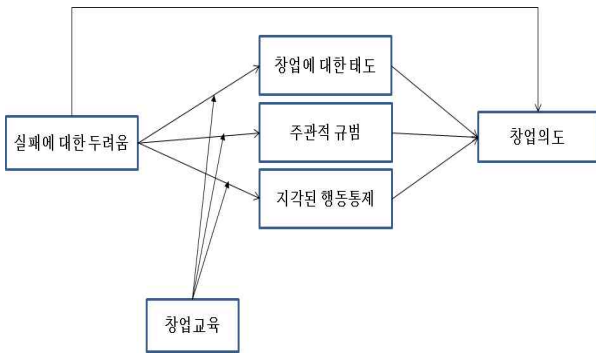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Diffley, 1962).

3. 연구모형 및 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계획된 행동모델을 매개로 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행동통제와의 관계,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의도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계획된 행동모델의 매개효과,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 가설 1: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에 대한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5: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6: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7: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창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8: 창업에 대한 태도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 가설 9: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10: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의도와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11: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부(-)적 효과는 창업교육에 의해 완화될 것이다.

가설 12: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에 대한 주관적규범에 미치는 부(-)적 효과는 창업교육에 의해 완화될 것이다.

가설 13: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부(-)적 효과는 창업교육에 의해 완화될 것이다.

4. 실증분석 결과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생을 표본으로 하여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321부를 분석에 사용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측정모형의 평가

변수	요인	요인적재량	Cronbach's α	개념신뢰도	AVE
실패에 대한 두려움	실패1	.883	.835	.757	.572
	실패2	.788			
	실패3	.634			
	실패4	.697			
창업 태도	태도1	.881	.951	.875	.796
	태도2	.914			
	태도3	.894			
	태도4	.897			
	태도5	.875			
주관적 규범	규범1	.635	.910	.777	.671
	규범2	.694			
	규범3	.877			
	규범4	.937			
	규범5	.907			
지각된 행동통제	통제1	.808	.809	.634	.586
	통제2	.760			
	통제3	.726			
창업 의도	의도1	.881	.934	.788	.740
	의도2	.916			
	의도3	.858			
	의도4	.819			
	의도5	.822			
x2=672.151, df=199, p=.000, CFI=.921 NFI=.893, IFI=.922, TLI=.909, RMSEA=.086					

본 연구에서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데 있어 두려움을 5가지 다차원적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독립변수에 대한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수치와 당황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확

실한 미래를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영향력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중요한 타인을 속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의 네 가지 요인으로 묶였으며, 네 가지 1차 요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하나의 2차 요인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2> 가설1에서 가설7의 검증결과

경로	계수값	C.R.	P
H1 실패두려움 → 창업의도	.038	1.037	.300
H2 실패두려움 → 창업태도	-.164	-1.967	.050
H3 실패두려움 → 주관적규범	-.193	-2.273	.023
H4 실패두려움 → 행동통제	-.136	-1.654	.098
H5 창업태도 → 창업의도	.878	13.589	.000
H6 주관적 규범 → 창업의도	.117	2.167	.030
H7 행동통제 → 창업의도	.276	5.498	.000
모델적합도	$\chi^2 / df=2.756, CFI=.925, NFI=.895, IFI=.925, TLI=.914, RMSEA=.084$		

<표 5> 가설8에서 가설10의 검증결과(매개효과)

H8 창업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모델1				모델2				
경로	t	p	x2/df	경로	t	p	x2/df	
(1)	-.107	-1.752	.080*	248.6 88/75 (p<.000)	-.109	-1.786	.074*	248.4 20/74 (p<.000)
(2)	.872	17.926	.000**		.874	17.876	.000**	
(3)					.018	.520	.603	
CFI-.956, NFI=.938, IFI=.956				CFI-.956, NFI=.938, IFI=.956				
H9 창업에 대한 주관적규범의 매개효과								
모델1				모델2				
경로	t	p	x2/df	경로	t	p	x2/df	
(1)	-.131	-2.138	.033*	219.5 74/75 (p<.000)	-.132	-2.144	.032*	219.5 37/74 (p<.000)
(2)	.655	12.505	.000**		.656	12.422	.000**	
(3)					.010	.194	.846	
CFI-.956, NFI=.937, IFI=.958				CFI-.957, NFI=.937, IFI=.958				
H10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의 매개효과								
모델1				모델2				
경로	t	p	x2/df	경로	t	p	x2/df	
(1)	.100	-1.524	.128	168.4 31/52 (p<.000)	-.098	1.469	.142	166.3 95 /51 (p<.000)
(2)	.676	10.600	.000**		.675	10.534	.000**	
(3)					-.010	.193	.847	
CFI-.951, NFI=.931, IFI=.951				CFI-.951, NFI=.931, IFI=.951				

<표 6> 가설11에서 가설13의 검증결과(조절효과)

구분	교육 무	교육 유	x2(df)
	C.R.(p값)	C.R.(p값)	
H13 실패두려움 → 창업태도	-.889(.374)	-2.072(.038)*	227.668(3)*
H14 실패두려움 → 주관적규범	-.1778(.075)	-1.900(.057)**	
H15 실패두려움 → 행동통제	-.1210(.226)	-1.397(.162)	

p=.000

5.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계획된 행동모델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완전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하여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을 매개로 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계획된 행동모델의 두 구성변수가 완전매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셋째, 창업교육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에 대한 태도 및 주관적 규범, 계획된 행동통제에서의 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오히려 창업교육을 받은 집단이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미약하게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창업을 장려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성공요인 중심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창업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아내어 심리적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중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동안 단일항목으로 측정해왔던 개념을 PFAI지수를 활용하여 다차원적으로 측정하였고, 이를 창업의사결정에 미치는 구성변수로 활용하여 기업가정신 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계획된 행동모델을 매개로 하여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창업에 대한 태도와 부(-)의 관계 및 주관적규범에 대한 부(-)의 관계를 완화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Von Graevenitz et, al(2010), Fayolle et al(2006)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학습자가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위험과 어려움을 학습하게 되어 이를 사전적으로 회피하려는 성향이 나타난 것으로 이재석(2015)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바이다. 이러한 결과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창업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창업교육의 목적에는 반하는 것으로, 향후 성공사례 학습, 실전 경험 교육 등을 통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한 교육방법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 배종태. (1998). 기업가정신 및 벤처경영에 관한 교육과정 개발. 벤처경영연구, 1(2)
- 이재석. (2015). 창업교육과 창업의지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병주. (1998). 창업 기회원천 분석과 기회탐색의 전략적 의미. 중소기업연구, 20(1), 245-266.
- Aldrich, H. E.(1999). Organizations evolving.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Arenius, P. & Minniti, M.(2005). Perceptual variables and nascent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233-247.
- Bosma, N. & Schutjens, V.(2011). Understanding regional variation in entrepreneurial activity and entrepreneurial attitude in Europe.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47(3), 711-742.
- Conroy, D. E.(2001).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fear of failure: The Performance Failure Appraisal Inventory (PFAI). Anxiety, Stress and Coping, 14(4), 431-452.
- European Commission.(2003). Green Paper Entrepreneurship in Europe.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Fayolle, A., Gailly, B. & Lassas-Clerc, N.(2006). Effect and counter-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ocial context on student's intentions. Estudios de economía aplicada, 24(2), 509-524.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s,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Flores-Romero, M. G.(2004). Is Entrepreneurship More about Sticking with a Firm, or about Running Several of Them? Evidence from Novice and Serial Entrepreneurs. Paper presented at the Industrial Economics Workshop, March 2004, University of Warwick.
- Gabriella Cacciotti and James C. Hayton.(2015). International Journal of Management Reviews, 17, 165-190
- Hormiga, E, & Bolívar-Cruz, A.(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gration experience and risk perception: A factor in the decision to become an entrepreneur.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0(2), 297-317.
- Lazarus, R. S.(1991). Progress on a cognitive-motivational-relational theory of emotion. American psychologist, 46(8), 819.
- Learned, K. E.(1999). What happened before the organization? A mode of organizational form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7(1), 39-48.
- McGrath, R. G.(1999). Falling forward: Real options reasoning and entrepreneurial failur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4(1), 13-30.
- Mitchell, J. R. & Shepherd, D. A.(2010). To thine own self be true: Images of self, images of opportunity, and entrepreneurial action.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1), 138-154.
- Mitchell, J. R. & Shepherd, D. A.(2011). Afraid of opportunity: The effects of fear of failure on entrepreneurial action.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31(6), 1.
- Morales-Gualdrón, S. T. & Roig, S.(2005). The new venture decision: An analysis based on the GEM project database. The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4), 479-499.
- Noguera, M., Alvarez, C. & Urbano, D.(2013). Socio-cultural factors and female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9(2), 183-197.
- Olaison, L. & Sørensen, B. M.(2014). The abject of entrepreneurship: failure, fiasco, fraud.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ur and Research, 20(2), 193-211.
- Shinnar, R. S., Giacomin, O. & Janssen, F.(2012). Entrepreneurial perceptions and intentions: The role of gender and cult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6(3), 465-493.
- Timmons, J. A. & Spinelli, S.(1994).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Vol. 4). Burr Ridge, IL: Irwin.
- Vaillant, Y. & Lafuente, E.(2007). Do different institutional frameworks condition the influence of local fear of failure and entrepreneurial examples over entrepreneurial activity?.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9(4), 313-337.
- Von Graevenitz, G., Harhoff, D. & Weber, R.(2010).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 Organization, 76(1), 90-112.
- Wood, M. S. & Pearson, J. M.(2009). Taken on faith? The impact of uncertainty, knowledge relatedness, and richness of information on entrepreneurial opportunity exploitation. Journal of Leadership & Organizational Studies.